

국어정책의 문화정책적 접근

박종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 세계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K-콘텐츠 확산 정책 이상의 것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환경 변화를 한국어 확산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관심, 정책적 노력,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어는 단순한 국민 간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국가 발전의 근본적, 핵심적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인간관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수용성, 탄력성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창의, 소통을 연계되어 협치(Governance)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할 것이다. 시대는 국어정책에게 인문학적 노력의 구체화와 사회과학적 실효성 추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수

최근 K-콘텐츠(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39개국 1,669개국 약 16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요즘 한국어는 세계인들 사이에서 호감의 대상이다.

세계 언어 순위(Ethnologue 2019)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자수(77.3백만 명)는 세계 15위이다. 놀랍게도 프랑스어(77.2백만 명), 독일어(76.1백만 명) 보다도 사용자가 약간 더 많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6개국에 이른다.

한국어(Korean)는 제주어(Jejuo)와 함께 한국어군(Koreanic)에 속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어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와 다른 지역어(방언)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라는 점은

제주도민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②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③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④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어기본법 제1조). 또한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어기본법 제2조). 즉,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달의 핵심요소란 점에서 단순한 언어를 뛰

어넘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체화 한다. 하지만 국어기본법은 세계인들의 한국어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는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에 한정 된다(국어기본법 제3조 제1항). 이런 공간적 범위는 `22년 현재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한 종합적 한국어진흥정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 정책의 다양한 관점을 고민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되며, 언어정책은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왕왕 발생시키기도 한다.

■ 국가 발전과 언어정책 그리고 패권

언어정책은 ‘국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가가 어문 규범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문자를 지정하며, 언어를 순화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며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정책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국어(한국어)를 외국에 전파하고 그 교육을 지원하거나 소수 민족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펼치는 정책’을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런 파급력 때문에 언어정책은 다양한 논쟁을 낳기도 한다. 대표적인 주제는 국가의 개입 유무이다.

국가 개입 유무에 따라 국가 중심 언어정책과 자유방임 언어정책이 있으며, 각각은 장단점으로 가진다.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의 핵심엔 효율성(경제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어의 국어(國語)라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우리 언어생활은 많은 부분 국가 개입을 통해 육성되었으며 그 전통은 꽤 길다.

1443년(세종25년) 훈민정음 창제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정책의 시작이었다. 또한 1945년 이후 표준어 규정,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어문규정, 국어사전편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언어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국어정책의 큰 틀이 되었다.

참고로 언어정책은 국가개입, 언어계획, 국가 내 언

어들의 기능과 존재 양상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표 1. 언어정책 구분

구분	분류
국가 개입 유무	국가 개입주의
	자유방임주의
언어계획의 유형 분류	위상계획(status planning) :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예)표준어 선정 등
	자료계획(corpus planning) : 문자 체계나 표기법 개선, 표준 규범의 제정. (예)어휘 현대화, 전문용어 정비 등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 : 특정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수와 사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노력. (예)모어, 제2언어 교육 등
국가 내 언어들의 기능과 존재 양상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
	다중언어 사용 정책

(출처: 조태린, 2010: 120-122)

언어정책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넘어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 후, 공용어 논쟁이 일어났고 그 핵심은 결국 언어 패권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지배계급 언어였던 영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힌디어 패권 장악의 견제로 인해 오히려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르완다의 경우 지배계급의 언어였던 프랑스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유어 대신 이웃 나라 지배계급의 언어였던 영어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언어 패권을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한겨레 칼럼(2020.11.4.).

■ 언어 다양성과 창의성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정의 한다.”고 말했다. 언어가 인간 인식의 한계를 정한다는 뜻이다. 융합, 창의, 협력이 중요한 시대에 언어 다양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핵심 재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표준어 정책과 지역어 진흥사업이 병행되는 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결과에서도 지역어 사용의 긍정적 측면, 보호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화다양성법」제2조(정의)에서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한다”고 말하면서 언어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정책 측면의 문화다양성 노력을 살펴보면 복수 표준어 정책 도입, 지역어 진흥사업, 국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런 정책적 맥락 속에서 언어정책의 입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

어제의 국어정책이 국어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어문 규범, 사전편찬, 국어능력 향상과 같은 국어 교과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양명희, 2014: 45), 한국문화의 세계화,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국어학, 국어 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언어학 등 관련된 영역의 협력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그 가운데 문화정책과의 긴밀한 협력이 우선시 된다.

마지막으로 국어정책과 관련 과거 다양한 논쟁들을 반추하여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국어정책보다는 세계인들과 국민 수요를 반영한 국어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창영 외(2020),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양명희(2014), 국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의 국어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0집.
-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 생활」, 제20권 제20호.
- Robert J. Fouser(2020.11.04.), “[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21세기 언어정책과 국가의 흥망”,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8560.html>)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2022). “국어정책의 문화정책적 접근”. 문화 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종웅 jwpark@kcti.re.kr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7.

#국어정책 #언어정책 #국어기본법 #언어 #국어